



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이 이를 널리 알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초·중·고교를 대상으로 학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가치 이해 ‘쑥쑥’

고창, 지역 초·중·고 대상 생태체험 등 학생교육사업

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이 이를 널리 알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초·중·고교를 대상으로 학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군은 지난달 지역 내 초·중·고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총 14개(초등7, 중등1, 고등6) 학교가 신청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운곡탐사트습지 등 5개 핵심지역(운곡탐사트습지, 고인돌 세계문화유산, 동립저수지 야생동식물보호구역, 선운산 도립공원, 고창갯벌 탐사트습지)과 생물권보전지역 중심으로 현장체험활동, 환경정화활동, 각종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한다.

이를 통해 고창의 미래를 이끌어

갈 학생들이 지역의 우수한 자연 생태환경과 문화 다양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.

또한 유네스코 학교가입 추진을 통해 국내·외 학생들이 교류함으로써 청소년 인성함양과 폭넓은 사고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군 관계자는 “학생교육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우수한 자연생태환경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며 군을 제대로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/고창=김종성 기자 · kjs58730@daum.net